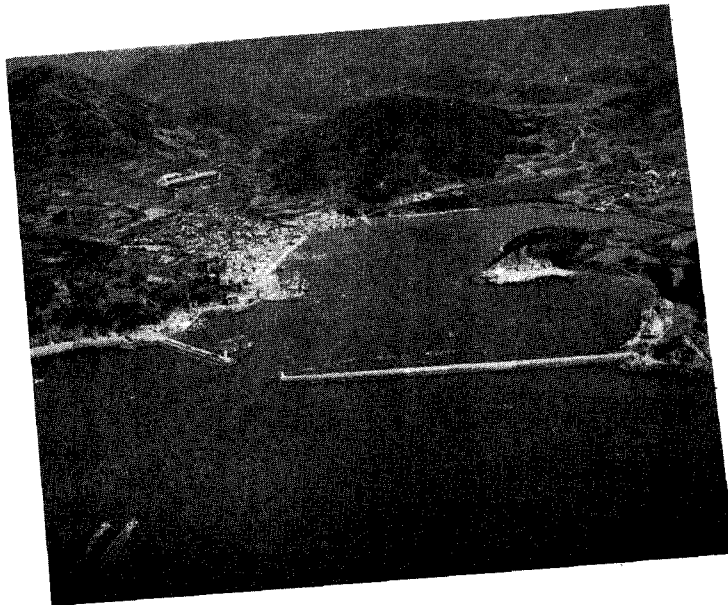


漁港事務所別 을 漁港投資계획을 본다

港別 綜合開發로 基本방향轉換

南海漁港事務所 ; 20개항에 244億4,200만원
西海漁港事務所 ; 15개항에 156億3,000만원
東海漁港事務所 ; 11개항에 78億6,000만원



우선 設計 早期착공 災害 최소화 1·3種 35個港도 利用實態를 점검

南海漁港事務所

어항은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보루이며, 수산업의 생산활동과 유통기로서 어촌지역 사회발전의 핵심적인 기반시설이다.

따라서 어항은 어업생산시설을 자연재난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어항을 중심으로 문화와 복지시설을 겸비한 정주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어민들이 만족 감속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산청에서는 장기투자계획(표 1 참고)을 수립하고 제7차 경제사회 발전계획기간(92-96) 중에 5,861 억 원을 투자하여 완공항 수를 현재의 150개항에서 269개항으로 늘려 어선을 완전수용토록 한다.

또한 지정어항을 현재의 399개항에서 510개항으로 확대 개발하여 항간평균거리를 32km에서 25km로 단축시킴으로써 조업시간 연장과 황천사의 대피기능을 높이고 기능시설도 보강하여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정주생활권이 조성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제7차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초년도인 92년도에 추진할 어항투자개발계획중 수산청 관리항인 1·3종항에 대한 투자기본방향과 이에 따른 남해어항사무소 소관항에 대한 항별투자집행계획을 설명하고, 끝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 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92년도 투자방향

수산청 92년도 어항투자개발 기본 방향은 첫째, '기본시설 완공위주'의 투자에서 각 어항의 모든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투자하는 '항별 종합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방과제, 물양장등 기본시설만으로 어항개발을 종료함으로써 미비시설의 보강이 어려워 어항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민원야기등 정부투자사업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켜 왔기 때문이며, 올해부터는 신규로 개발할 어항 뿐만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집행중인 1·3종어항은 전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기본시설, 기능

(표 1) 수산청어항건설투자계획

	'90 까지	'91	7차5개년계획기간						'97~ 2001
			'92	'93	'94	'95	'96	계	
사업비 (억원)	4,074	656	597	948	1,136	1,361	1,819	5,861	20,541
기본조사 (항)	-	14	-	20	20	20	30	90	147
1·3종어항 (km)	56	5	5	10	12	14	20	61	218
2종어항 (km)	72	2	2	3	3	4	11	16	26
어항관리 청소선(척)	-	-	-	1	1	1	3	6	-

시설 및 부대시설이 연계된 보다 완벽한 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개발하고자하는 것이다.

둘째, 기본시설이 이미 완공됐으나 미진한 시설이 남아있는 어항에 대하여 '유지보강 시설을 조기에 완료' 함으로써 어항의 이용도 제고 뿐만아니라 태, 폭풍의 자연재해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완공항 중에는 과거 부족한 예산 탓으로 기본 시설조차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완공으로 종결된 어항이 있어 이런 어항에 대하여 기성 구조물을 보강하거나 부족시설을 확충하는 일과 항내 적정수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강정비를 추진하는 일은 새로운 어항을 건설하는 것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어항확대개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지정항 개발 착수' 이다.

현재 항간거리가 평균 32km로서 조업시간 확보와 기상이변시의 장거리 대피등에 어려움이 있어 2000년대에는 항간 거리를 20km로 단축하고자 신규어항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 개발함으로써 전 어선의 안전수용은 물론 조업시간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항별 투자 집행계획

수산청 투자 개발 기본방향에 따라 92년도 남해어항사무소에서 집행할 어항사업 규모

는 총 20개항에 244억 4,200만원으로서 투자성질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기 개발중인 어항시설을 조기 완공하기 위한 수축사업으로 마량항등 10개항에 207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물양장 370m, 방파제 760m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노후 및 취약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강을 위하여 안도항등 2개항에 16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및 물양장을 보강하고 어항확대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내발항등 7개항에는 전문 기술단의 용역조사결과에 의거

기본시설계획이 수립되는대로 21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외곽 시설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각 항별 투자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지면관계상 표 2로서 가름한다.

여기에서는 92년도 주요투자 어항중 올해로서 모든 기본 시설을 완공하게 되어 남해안의 대표적 어항으로 떠오른 국동항(전남 여수)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하겠다.

동항은 남해안의 중앙에 위치하고 동남쪽으로는 돌산도,

92년 어항별 공사추진 계획

(남해)

(단위 : 백만원)

구 분	항 명	예 산	시 설 명
총 계	20 개 항	24,442	
수 축 사업	(10 개 항)	20,742	
	마 량 항	2,000	방파제
	소 안 항	800	방파제, 물양장
	녹 동 항	2,500	방파제
	국 동 항	2,832	물양장, 파제제
	미 조 항	310	물양장
	물 건 항	3,000	방파제
	육 지 항	3,000	방파제, 물양장
	지 세 포 항	2,300	파제제, 물양장
	도 두 항	1,000	방파제
신규지정어항	위 미 항	3,000	방파제
	(7 개 항)	2,100	
	여 서 항	300	방파제
	사 동 항	300	방파제
	내 발 항	300	방파제
	시 산 항	300	방파제
	남 도 항	300	방파제
	다대다포항	300	방파제
김 녕 항	300	방파제	
유지보강사업	(3 개 항)	1,600	
	안 도 항	800	방파제
	능 양 항	500	방파제
	추 자 항	300	물양장

대경도 및 소경도와 서쪽으로는 고흥반도가 자리잡아 외해의 파랑을 막아주어 방파제가 필요없는 천연의 양항(良港)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76년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올해까지 114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물양장 1,904m, 돌제 460m, 파제체 250m, 도선장 90m 및 준설 20만^m³를 완료하게 됨으로써 항내 수면적 97만 5,000^m²(정온수면적 : 48만 9,000 ^m²)를 확보하게되어 30톤 급어선 1,500여척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을 뿐 아니라 후면에는 수산물 유통 및 가공을 위한 대규모 어항단지가 조성되어 복합기능을 갖춘 선진화된 어항으로서의 면모를 갖게 되었다.

세부추진 계획

상기한 항별 투자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

첫째, 중요어항에 대한 우선 설계와 조기착공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어항공사의 제일 관건이므로 7-9월의 태풍 내습기 이전에 주요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태풍진로권에 위치한 수축 및 보수보강 어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계를 완수하여 조기에 발주하는 것이다.

둘째, 신규 지정어항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2종항에서 1·3종 어항으로 승격지정된 것으로 수산청의 기본조사에 의한 충실한 계획이 수립된 뒤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보다 완벽한 기능을 가진 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어항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고도의 품질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현장시공 기술책임자 간담회등을 통한 기술지도 감독에 더욱 정진하여 시공기술 제고에 노력하며,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한층 더 힘쓸 것이다.

또한 관할 35개 1·3종 어항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물의 보수보강과 무단점유물 및 폐선등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수산관계기관 단체 및 어민으로 구성된 어항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어항관리상의 제반문제점과 대책을 토의하여 월 2회 이상의 어항구역 대청소실시와 대어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어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항개발 계획에서 시공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는 어항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자 전직원이 노력을 경주 해나가야 할 것이다. 4

새로 모항·홍원·말도·수품港 工事 西海岸時代 맞춰 開發漁港발굴

西海漁港事務所

1991년 8월8일 개소한 수산청 서해어항사무소는 정책수립기관인 본청(어항과)의 집행

기관으로 본청에서 세워진 정책 또는 계획을 서해의 특성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어항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담할 수 있게 됐다.

서해어항사무소는 정부의

21세기를 향한 서해안시대의 개막에 걸맞은 어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 인력과 여건이 이에 따라주지 못해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어항사업이 작게는 어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주는 소극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크게는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서 원동력이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92년 서해어항사무소의 어항투자개발계획을 부문별로 풀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어항사업방향

서해어항사무소의 어항사업 방향은 어항시설사업방향과 어항관리사업방향으로 크게 두가지 나누어 책정했다.

우선 어항시설사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개발되어 진행중에 있는 안마항의 기본시설을 완공위주사업으로 수행한다.

둘째, 신규지정항에 대한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여 어선의 안전수용과 긴급대피 등 어촌사회의 생활근거지로서 구실을 원활히 수행한다.

셋째, 기존시설의 유지보강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노후취약한 어항기능을 적극 보완하여 어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음으로 어항관리사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적으로 어항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한다.

둘째, 유관 수산기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쾌적한 어항환경

경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어항예산규모

서해어항사무소의 92년도 어항예산은 모두 156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신규사업항은 4개소나 늘어난 반면, 책정된 예산은 오히려 줄어 들었다.

따라서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나 어민에 대한 성실한 자세로 이런 점을 이해시켜 원만한

공사를 수행해 나가려고 한다.

92년도 서해어항사무소 세부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축사업

모두 4개항에 113억원을 투입해 4건의 공사를 수행한다.

어청도항의 서방파제 상부 50m, 하부 30m에 20억원, 소흑산도항의 방파제 상부 30m, 하부 35m에 38억원, 격포항의 서방파제 축조 115m, 물양장 축조 100m에 30억원, 안마항의 서방파제 축조 115m, 파제제 보강 100m, 등대1기에 25억원 등이다.

92년 어항별 공사추진계획

(서해)

(단위: 백만원)

구 분	항 명	예 산	시 설 명
총 계	15개항	15,630	
수 축 사 업	(10 개 항)	13,360	
	외 연 도	500	물양장, 방파제
	어 청 도	2,000	방파제
	격 포	3,000	방파제, 물양장
	안 마	2,500	방파제, 파제제, 등대 1기
	계 마	360	물양장
신규지정어항	소 흑 산 도	3,800	방파제
	(4 개 항)	1,200	
	모 항	300	방파제, 제작장
	홍 원	300	방파제
	말 도	300	방파제, 제작장
유지보강어항	수 품	300	방파제
	(5 개 항)	2,270	
	어 유 정	400	물양장
	안 홍	860	물양장, 매립
	위 도	300	방파제
	서 망	410	방파제, 등대2기
어 란 진			물양장
		300	물양장, 방파제

나. 신규사업

모두 4개항에 12억원을 투입해 4건의 공사를 수행한다.

충남의 모항항과 홍원항, 전북의 말도항, 전남의 수품항에 항별로 각 3억원씩 모두 12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해 어항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 4개항의 개발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어항은 지난해 수산청의 항중변경계획에 따라 2종어항에서 1·3종 어항으로 신규 지정된 어항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 첫 해부터 대단한 규모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개발이 가능

한 어항을 수시로 발굴, 어항의 모양새를 갖춰 나간다면 머지않아 나름대로 제대로 시설을 갖춘 어항이 늘어나 서해안 시대에 부응할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유지보수사업

원래 어항공사는 공사의 진행속도나 효과가 단시간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지루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 10년, 20년씩 진행돼 온 어항공사가 수두룩하며 언젠가 꼭 해내야 될 사업이므로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독특

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중에 모두 5,861억 원을 투자하여 대대적인 어항공사를 펼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서해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방정책과 맞물려 교두보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하므로 이에 거는 기대 또한 적지않다.

이런 관점에서 어항부문도 앞으로는 지금과 다른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4

5곳 修築, 수산港 據點港으로 開發 다대포·대진항·방어진항을 補強

東海漁港事務所

수산청 본청에서 관장해오던 제1·3종어항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배정 등 정책기능을 제외한 설계, 시공감독 및 집행기능과 어항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동해어항사무소가 발족했다. 관할구역은 강원도 대진항으로부터 부산의 다대포항까지 제1종 어항 23개소와 경상북도 울릉도에 소재

한 제3종어항인 현포항, 저동항 등 총 25개 어항을 관할하고 있다.

91년 사업실적

먼저 91년도 어항시설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1년도에는 수축사업으로 사동, 구계 및 현포항 등 3개항에 43억2,700만원과 보수보강사업으로 대진, 아야진, 방어진 및 정자항 등 4개항 5건

에 20억9,7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연말에는 대포, 견소 및 저동항 등 3개항에 3억7,100만원이 배정되어 추가 집행하는 등 지난 한해 동안 모두 10개항 11건에 117억9,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92년 투자개발계획

92년도에는 11개항에 78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됨으로써 91년보다 사업비가 줄

어 들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욱더 정진하여 어민 편의 및
 지역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노
 력을 계속함으로써 이 부분을
 보충시켜나갈 계획이다. 올해
 의 어항 시설 사업을 항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축사업

수축사업으로는 5개항에 51억
 8,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1) 사동항

본항은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에 위치한 제 1종어항으
 로 전면해역에 콩치, 오징어,
 명태 쥐치 등의 어군이 형성되
 는 풍부한 어장을 배경으로 하
 고 있으나 위판 및 출어 준비가
 주로 인근 죽변항 또는 후포항
 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어
 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85년도 부터 본격 개발되기에
 이르렀는데 시설계획으로는 총
 174억원을 투자하여 북방파제
 716m, 파제제 25m, 방사제

92년 어항별 공사추진계획

(동해)

(단위: 백만원)

구 분	항 명	예 산	시 설 명
총 계	11 개 항	7,860	
수 축 사업	(4 개 항)	4,880	
	사 동 항	3,000	방 파 제
	현 포 항	1,000	방 파 제
	읍 천 항	480	준 설
신규지정어항	(4 개 항)	1,400	
	수 산 항	500	방 파 제
	오 산 항	300	방 파 제
	구 산 항	300	방 파 제
유지보강어항	(3 개 항)	1,580	
	다 대 포 항	800	물 양 장
	대 진 (강)	280	물 양 장
	방 어 진 항	500	방 파 제

80m, 남방파제 250m, 물양장
 240m, 호안 45m, 선양장
 30m 등으로 91년도까지 70억
 원을 투자하여 북방파제 453m,
 파제제 25m전량, 방사제 80m

전량, 남방파제 140m, 물양장
 하부 85m를 축조한 바 있으
 며, 92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
 하여 방파제 124m를 축조할
 계획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항
 내면적 5만 5,000㎡에 정온수
 면적 3만 3,000㎡로 지방어
 선 180척 이상의 안전대피가
 가능하고 인근항이 아닌 본항
 에서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출
 어 준비로 적시출어가 가능하
 여 어민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수산관련 산업의 유치
 로 지역 사회 발전이 촉진될
 것이다.

(2) 현포항

현포항은 울릉군 북면에 위
 치한 제 3종 어항으로 지형적
 으로 북서, 북동계열의 계절풍
 래습 방향에 노출되어 있으며



해저지형이 급경사로써 파의 굴절현상이 현저한 곳이다.

근해에는 오징어 명태 등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성어기에 집결하는 외래어선의 안전정박 및 조업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총 205억원을 투자하여 북방파제 685m, 동방파제 260m, 물양장 140m, 선양장 30m를 시설할 계획이며 91년 말까지 투자실적으로는 북방파제 578m, 물양장 131m를 축조하였다.

91년도 중에도 22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상부 54m 및 피해복구, 보강공사를 한 바 있으며, 92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방파제 40m를 축조할 계획이다.

(3) 견소항, 읍천항, 대변항

견소항은 강릉시 송정동(견소동)의 남대천 하구에 위치한 제 1종 어항으로 근해에는 풍부한 수산자원이 많으나 어항시설이 전무하여 어선들이 주문진항이나 묵호항등을 이용하여 강릉시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을 육로를 통하여 수송해오는 실정이었으나 견소항이 개발될 경우 강릉시의 수산업이 급격하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각항으로부터 육상 운송되던 수산물이 본항으로 집결, 선도 높은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수송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주변에 산재한 경포대 해수욕장

등 관광지로의 해상교통이 연결되어 관광어항의 역할도 기대된다.

시설계획으로는 116억을 투자하여 방파제 655m, 물양장 490m, 호안 105m, 선양장 30m 및 준설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91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호안축조 90m를 설계 및 계약, 이월하였으며 3월 10일 재착공하였고 92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방파제 약 40m를 시설할 예정이며, 시설투자가 완료되면 정온수 면적 5만 4,000㎡, 어선 안전 수용능력 약 150척(10톤급 기준)으로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 지역사회 발전이 촉진될 것이다.

한편 92년도에 읍천항은 4억 8,000만원, 대변항은 4억원이 투자되어 항내 유지준설을 하게 된다.

나. 거점항 개발사업

해역별 거점항 개발 사업인 수산항에 대한 투자를 들 수 있다.

속초 남방 20km에 위치한 수산항의 인근해역은 수산자원의 보고로 인근어항의 선박들이 이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으나 어획물의 출하 위판은 속초나 주문진항에서 양륙하고 있어 시간과 경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항시설만 갖추어지면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어항기능의 활성화가 곧바로 뒤따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91년도

에 제 1종어항으로 승격지정되어 92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현재 수산항은 기본조사 실시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시설계획 수립후 5억원을 투자, 방파제를 시설할 예정이며 외곽시설 및 물양장이 완성되면 동해안 북부의 중심 거점항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기타사업

92년도 유지보강 사업으로는 부산 다대포항에 8억원을 투자, 물양장 상부 141m, 하부 128m를 보강하며, 강원도 고성군의 대진항에는 2억 8,000천만원으로 물양장을 보강하고 울산시에 위치한 방어진항에는 5원억을 투자하여 방파제 보강공사를 하게 된다.

신규지정 어항으로서 울해에 첫 투자를 하게되는 경북 울진의 오산 및 구산항은 91년 제 1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현재 기본조사 실시중으로 시설계획 수립후 각항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외곽시설인 방파제를 시설할 계획이다.

이상으로 92년도의 동해어항사무소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개발중인 어항의 조기 완성과 장래 어항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어민의 복지, 문화 생활수준 향상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어항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겠다. ㉠